

호텔화재의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1. 호텔과 화재위험

호텔에는 습성(習性)이 판이한 수많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할 뿐만 아니라, 투숙객들은 대개 유락(遊樂) 기분에 젖어 안전 문제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형편이다.

게다가 전기용품, 가연성 물질, 가스등 발화·인화 가능성 이 높은 다양한 물품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므로 화재발생 가능성도 높다. 또한 일단 화재가 발생할 경우 투숙객들에게는 낯선 장소이기 때문에 당황하여 혼란상태가 커지고, 화염·연기·가스가 계단·승강기 통로등을 통해 급속히 확대되는 관계로 대량의 인명피해를 내기 쉬운 특색도 있다.

근래에는 호텔의 고층화, 대형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그 위험성이 더욱 높아만 가는데, 우리의 기억에도 아직 새로운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71. 12. 25: 사망 163명, 부상 63명), 서울 뉴남산호텔 화재(74. 10. 17: 사망 19명, 부상 45명), 서울 브라운호텔(대왕코너) 화재(74. 11. 3: 사망 88명, 부상 33명), 대구 금호호텔 화재(82. 12. 29: 사망 10명, 부상 19명), 마산 고려호텔 화재(83. 10. 2: 사망 10명, 부상 36명) 등은 호텔화재의 무서움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일깨워주는 몇가지 실례라고 하겠다.

2. 호텔화재의 원인

호텔과 여관의 화재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80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호텔·여관의 화재 건수는 70건 이었으나 그것이 근래에는 76건(81년), 108건(82년), 112건(83년)……으로 늘어났다.

특수건물의 예를 보아도 1979년부터 1983년사이 5년간 화재 발생율이 가장 높았던 물건은 호텔이었으며, 같



은 기간 중 화재 1 건당(件當) 인명 피해가 가장 높은 물건도 역시 호텔이었다.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작성한 특수건물의 최근 화재원인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호텔 화재는 주로 전기및 담뱃불에 의해 발화되어 가연성 내장재(内裝材)와 방화구획(防火區劃) 불량 등의 요인으로 연소(延燒)가 확대되고 설치된 소화설비나 피난계단 등의 피난시설이 유효하게 이용되지 못함으로써 더욱 큰 피해가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몇몇 호텔의 예에서 보는바와 같이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부족은 유사시 소규모의 피해로 그칠 수 있었던 피해를 예상 밖의 큰 피해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사실, 소방법·건축법등 안전 관계법에서 정한 각종 설비·기기·시설이 약간 부족하거나 미비되었다고 해도 종업원들에게 철저한 안전훈련을 시켜 놓았다고 하면 이러한 약점을 크게 커버할 수 있으며 유사시에도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예는 실제로 많이 있었다. 서울 L호텔에서는 지금까지 몇 차례의 화재사건이 발생한 일이 있었으나 평소에 훈련시킨 속칭「특공대」의 기민한 활동으로 초기에 진압함으로써 별 피해를 입지 않았다.

3. 방화 체크리스트(Checklist)

호텔의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의 점검항목(Checklist)은 호텔의 시설·규모, 종업원의 수등 여러 여건에 따라 독자적으로 작성, 사용하여야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 영국의 방화협회(Fire Protection Association)가 작성한 샘플을 참고로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여 한가지 샘플을 제시한다.

| 1. 지배인 자신의 확인 사항 | 긍정적인 경우 0 표 | 불확실한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 (또는 다음 기관과 상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숙객, 직원, 재산의 안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부재 시 책임을 담당할 직하위급 직원을 지정해 두었는가? • 정기 방화점검 계획을 작성하여 이 계획에 따라 철저히 점검을 실시하는가? • 모든 직원 특히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 방화문·방연문의 상태는 완전한가? • 화재 시 대응대책은 명백하게 마련, 인식시키고 있는가? • 화재 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경보 설비가 있는가? • 화염이나 연기로 인해 장해를 받을 경우 (정상피난로 차단의 경우) 다른 방법을 택하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 모든 비상구·피난 통로는 명백히 표시되어 있고 표시등은 켜져 있는가? • 주(천원) 장치의 고장시 비상점등 장치가 작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가? • 각방·화장실 등에 "화재 신고법", "화재 시 피난법", "피난로 차단시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해 두었는가? • 화재 시 직원들이 투숙객의 안전피난을 보장하도록 훈련되어 있는가? • 건물 개수시 안전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 소방기기는 적당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으며 유사시 이상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관리를 철저히 하는가? • 방송시설은 완비되었는가?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p>"매일(정기) 점검일지" "소방훈련 계획"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소방서</p> <p>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소방서 "</p> <p>"</p> <p>"</p> |
| 2. 매일 확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난 통로에는 장애물이 놓여져 있지 않는가? • 피난 통로로 통하는 문들은 내부에서 외부(피난 방향)로 열리도록 되어 있으며, 문들은 여닫는 데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는가? • 모든 방화문은 잠겨지지 않은 채로 닫혀 있는가? • 소화기·소화栓·피난기구는 눈에 잘 띠는 곳에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놓여져 있는가? • 난로·풍로·천열기등 주위에는 가연성 물건들이 가까이 놓여져 있지 않는가? • 빈 객실의 재떨이, 쓰레기통은 말끔히 치워져 있는가? 청소 상태는 양호한가? • 각방·로비·호출·클럽 등에는 큰 용량의 재떨이가 충분히 비치되어 있는가? • 인명 기록을 위한 숙박부는 화재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되고 있는가? | | 확인됨(불량시 X, 양호시 0 표) |
| 3. 화재시의 조치에 관련된 확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직원 특히 교환수는 화재발생 사실을 즉시 소방서에 신고하고 지배인·방화관리자에게 알리도록 훈련되었는가? • 야근자들은 상기 사항을 이해하도록 교육 받았는가? • 화재 시 투숙객들을 호텔밖 지정한 집합소로 직접 안내할 책임자는 임명되었는가? • 화재 시 전 교환수가 가능한 한 모든 방에 유선으로 알리도록 훈련되었는가? | | |
| 4. 직원 훈련과 관련된 확인 사항 <전직원과 관련된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직원은 화재 발생 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는가? • 전 직원은 피난 방법에 대한 계속적인 훈련을 받았으며 투숙객들을 피난로를 통해 안전히 인도할 능력이 있는가? • 전 직원은 화재 경보방법, 소방기구 사용 방법에 숙달되어 있는가? <프론트 오피스 등의 간부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간부 직원은 화재 시 소방서에 연락하는 방법을 아는가? (전화번호 등) • 전 간부 직원은 화재발생시 방화관리자, 지배인, 전 투숙객에게 통보하도록 교육 받았는가? • 야간 숙직 간부들도 상기 사항을 이해하도록 교육 받았는가? <청소·잡무 담당직원과 관계된 확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잡무 담당 직원들은 침실·복도 등으로부터 수거한 쓰레기를 안전하고 밀폐된 비가연성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교육 받았으며,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 그들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직원을 하며, 작업증 금연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그들은 가연성 액체 취급시 특히 주의하도록 교육 받았는가? • 그들은 과열된 난방기구, 불량한 전선 등 잠재적인 발화 위험이 있는 사항들을 즉시 보고하도록 교육 받았는가? • 그들은 전열기구의 스위치를 끈 후에 반드시 플러그도 빼어 놓도록 교육 받았는가? <주방근무 직원과 관련된 확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 근무 직원은 지방질이 퇴적하기 쉬운 남비뚜껑·오븐 등을 항상 청결히 유지도록 교육 받았는가? • 그들은 조리중 기름기에 인화된 불을 소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 그들은 정기적으로 가스기구에 비누거품을 바르는 등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 주방내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주방직원은 사용법을 아는가? • 그들은 주방 내에 서의 금연 규칙을 지키고 있는가? • 모든 천동기·냉각코일 및 전열기등의 불량으로 화재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토록 훈련 받았는가? | | |
| 5. 절비·보수·기타와 관련된 확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보수·개수 작업시 반드시 호텔 직원중 감독자를 세워 안전 체크를 계속 하는가? • 소화기·소방기기는 정기적으로 체크하는가? • 한국화재보험협회·소방서 등이 권장하는 시정 사항의 개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 | |